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알-하사, 사우디아라비아

바르셀로스, 포르투갈

비다, 나이지리아

비엘라, 이탈리아

가브로보, 불가리아

김해, 대한민국

호이안, 베트남

가나자와, 일본

퀴타히야, 터키

마니세스, 스페인

파두카, 미국

파스토, 콜롬비아

웨이팡, 중국

알-하사의 공예와 전통산업

알-하사 사람들은 경제 활동 및 실용적인 필수품들과 얽혀 있는 공예와 전통 산업의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예와 전통산업의 기술들은 직물 생산, 금세공, 야자수 잎 공예품, 목공예품, 금속공예, 구리와 은 세공, 장식, 도자기, 점토 건물의 복원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부문을 포함합니다. 특히, 이러한 공예품들 중 일부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집에서 꼼꼼하게 제작됩니다.

대표적인 공예품은 커피포트인 딸라입니다. 구리로 제작되어 아랍 커피의 제조에 사용된 알-하사의 딸라는 절묘한 아름다움, 디자인,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으로 걸프 나라들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 필수품인 공기 냉각기와 보일러와 같은 지역의 점토로 만든 도자기는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합니다.

알-하사에서 공예와 산업은 단순한 공리주의적 목적을 넘어 지역 정체성으로 확장됩니다.

알 카라 산은 전통적인 관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우디의 관광 및 고대유물 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야자수 잎은 야자수 섬유와 가지와 함께 건설과 농업에 사용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또한 전통적인 아랍 의자를 위한 베개와 쿠션, 그리고 물 냄비를 운반하기 위한 원뿔 모양의 독특한 주머니 가방(마르와)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알-하사에서 야자는 식사 매트, 대추야자 제품, 돌망태, 손 선풍기, 음식 커버, 수공예 예어스크류 등 다양한 전통 산업을 통해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자른 잎이 없는 팜 가지인 알수무트는 습식 케이지, 우유 및 아기 침대와 같은 필수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용도의 원료 역할을 합니다.

알부슈트, 즉 비슈트의 공예는 영국과 아랍 국가들에서 알-하사의 명성을 드높입니다. 품질로 인정받고 다양한 크기와 색상으로 이용 가능한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슈트는 특히 왕족, 목사, 학자들에게 인기있습니다. .

알-하사의 농업이 발전하면서 필수적인 철제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공예, 즉 야장기술 또한 발전하였습니다. 금속공예에 종사하는 가족들은 여러 분야에 필수적인 화분, 쟁반, 낫,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포함한 여러 도구를 생산합니다.

호루라기를 제작하는 기술은 구리와 은으로 만들어진 금속 도구들을 닦고 연마하여, 그것들을 반짝이고 새것 같은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꼼꼼한 과정은 특히 커피 포트(달라)와 같은 숭배하는 공예품들에 적용됩니다.

숙련된 농부인 Al-Saram은 야자수에서 덜익은 곡물을 수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한편, 밀가루와 대추로 만든 하얗고 빨간 하사위 빵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Al-Ahsa의 제빵 기술은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타와 빵으로 알려진 일반 빵은 철판 위에서 만들어지며, 도시와 마을의 여성들이 이 제빵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브라힘 알슈바이트
(Focal Point of Al-Ahsa)

창의성의 집

2017년부터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 예술 창의 도시로 지정된 바르셀로스에는 116,000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장인 공동체 간의 탄탄한 유대관계를 통해 창의적인 부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스 시는 전통 도기에 특히 중점을 둔 수공예와 국가 관광의 진정한 아이콘이 된 그 유명한 갈로 데 바르셀로스(바르셀로스 수탉)를 강력하게 접목시킴으로써 꾸준히 창의적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 제품들과 더불어 목공예품, 철공예품, 자수와 같은 다른 수공예품들도 바르셀로스 주간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역 수공예품의 대규모 판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예와 민속 예술의 차별성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성 요소인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을 영속화 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된다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된 공예와 민속 예술의 전통에 가치를 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지방 자치 단체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은 이 분야의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 수공예의 부활, 도자기, 목공예, 자수 및 철공예와 같은 전통 제품의 생산, 그리고 현대 예술, 창의 산업, 관광 및 상업과 같은 기타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세기에 걸쳐 문화가 고도의 전문화, 다양성 및 업무 창의성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예술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 단체나 센터의 활동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세 가지(도자기, 점토 인형 및 크리보 자수) 영역의 고유하고 인증된 제품들에 구현된 노하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바르셀로스에서 공예는 보편적인 활동이자 그 지역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반입니다. 이는 세대를 초월한 가족 기반의 기초가 되는 집단적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점토와 자수 생산에 중점을 두어 온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술과 공예를 생계 수단으로 삼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진정한 살아있는 유산이자 지역 문화 정체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공예와 민속 예술 부문의 창의 도시로서, 바르셀로스는 공예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열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의성의 집(House of Creativity)은 최근 2023년 5월 3일에 문을 연 새로운 장소입니다. 이 곳은 도시 중심부의 루아 페르난도 마갈하에스(Rua Fernando Magalhães, nº 106)에 위치한 바르셀로스 지방 자치 단체 소유의 건물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교류하며 바르셀로스의 창의적 문화를 홍보하는 발판을 만들고, 또한 창의성을 도시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

하는 다른 도시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창의 분야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에서 오늘날 창의적인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정책은 지역 이해관계자, 다른 포르투갈 창의도시들 및 기타 세계 유네스코 도시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공간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전통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입니다;
- 창의력을 증진시킵니다;
- 창작자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 다른 문화 간의 교류를 촉진합니다.

창의성의 집은 또한 다음과 같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 전통예술과 공예를 창의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공간;
- 공예 커뮤니티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공간; 그리고
- 수공예품의 디지털화를 위한 혁신의 중심지.

이 곳은 또한 공예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며 새로운 예술가의 탄생을 장려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창의성을 위한 이 새로운 공간은 무엇보다도 전통 지식을 보존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만 이미 점토와 자수, 목공예, 철공예, 고리버들 세공과 같은 수공예 분야에서 경험했듯이 지나치게 기술적인 미래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전통예술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 공간은 이미 글쓰기/문학, 시청각, 디자인, 회화,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강좌를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간은 기존의 장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주요 활동 특성상 익숙하지 않은 영역, 즉 ICT 프로그램,

사진, 세금 및 회계, 디지털 도구 훈련과 같은 지식을 그들에게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인들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가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 그들의 비즈니스를 적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며 커뮤니티의 창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비다, 나이지리아

비다의 나무 조각가들

시미니(Shimini)와 타코아사(Takoassa)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다(Bida)의 나무 조각가들은 "에그바스(Egbas)" 또는 "그바그바(Gbagba)"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해 왔으며 이제 현대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미니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배우고 지역 사회로 가져온 기술을 의미합니다. 초창기에는 비다에 나무 조각가가 없었습니다. 시미니 나무 조각가는 초아데(Tsoade) 왕조의 후손인 에츠 사바(Etsu Saba)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라데(Lade) 마을을 여행할 때 우연히 나무 조각가들을 만났고, 나중에 이 기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비다에서 라데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배운 후 1815년에 라데에서 시미니 조각가가 되어 비다로 돌아왔고, 후에는 타코아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에그바스(나무 조각가)로서 그들은 숲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조각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문, 좌석, 악기, 카누, 의자 및 피스톤과 같은 품목들에 가장 적합한 목재를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수가공을 하는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열두개인 나무 스톨

다리가 열두개인 나무 스톨은 누페(Nupe) 전통에서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춤 제작된 수제 스톨은 누페 사회의 귀족과 작위 보유자를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에사 사기(Esa Sagi)"라는 이름의 의자가 있는데, 이는 의례에서 고위층의 여성을 위한 의자입니다. 의자는 작위 보유자의 지위, 사회에서의 역할, 때로는 조각가의 선택에 따라 디자인

이 달라집니다. 예사 사기는 조각가들에게 "마샤루와(Masharuwa)"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의사 결정을 내릴 때뿐만 아니라 그 판결을 전달하거나 집행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다리가 많을수록 스톨이 넓어집니다. 스톨의 높이는 의자의 모양에 따라 약 1-1.5피트 반경의 표면적과 함께 1-2피트까지 다양합니다. 예츠 사바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왕이 사기 은치코(Sagi Nchiko, 즉, 높은 등급의 사기)의 다리가 12개 달린 의자(마샤루와)에 앉아 노예들에게 연설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스톨에는 마샤루와 사기코(Masharuwa Sagiko, 즉, 고급 사기의 스톨) 라고 불리는 컵 홀더가 제공되어 스톨의 특성에 맞는 품격을 보여줍니다. 또다른 에미르(Emir)인 예츠 사이두(Etsu Saidu)는 목욕을 할 때 마샤루와 의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샤루와(Masharuwa)는 영적 활동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6개에서 10개 정도의 다리로 조각되기도 했습니다.

조각을 시작하려면 먼저 적합한 나무를 찾아 도끼로 베고 모양을 자릅니다. 조각 방식은 마음속에 그려진 패턴을 나무에 투영하여 깎아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기니아 옥수수 막 대기에 예싱기(Ecingi)를 채워 만든 비나(Bina)라는 그리기 도구로 나무에 표시를 합니다. 예싱기는 나무에 형태를 스케치하기 위해 염료로 사용되는 작은 남색 식물입니다. 조각가들은 도끼를 사용하여 나무의 큰 부분을 자르고 가운데 부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나무의 두께를 최종 모양으로 다듬어 나가는 데에는 케케레기(kekeregi)로 알려진 3 세트의 작업 도구가 사용되는데, 이는 트리머로 사용되는 다양한 크기의 자귀(손도끼)입니다. 다리가 12개인 스톨의 경우, 나무의 너비를 12 등분으로 나누고 예싱(염료)을 사용하



여 다리를 나무에 새겨 넣습니다. 조각은 원의 첫 번째 다리 위치에서 마지막 다리 위치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며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목적에 맞게 디자인이 표시된 스톨을 작은 자귀를 사용하여 마감합니다. 그런 다음 스톨을 매끄럽게 만들고 나무 곤충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어 버터 오일로 광택 처리합니다.

이 스톨의 몇 가지 주목할만한 디자인 요소에는 민속 예술과 상징들의 보존을 의미하여 표면에 새겨지는 누페 문양에 대한 전통 지식이 포함됩니다.

그 디자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와라(Wara) - 느슨함, 개방감, 분리됨
- ii. 에쉬그와파(Eshigwakpa) - 개 팔꿈치
- iii. 에파와 사이 아쿤 그바라 다쿤(Epawa sayi akun gbara dakun) - 뱀 가죽. 도마뱀 식민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iv. 마사카(Māsaka) - 벼, 직조 틀, 권투 할 때 부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손목 밴드
- v. 시카(Cikā) - 경작되지 않은 숲, 덩불, 사막
- vi. 에그바와(Egbawà) - 도끼 자국, 긁힌 상처, 소원 표시
- vii. 드자미그반(Dzamigbän) - 굴레, 피곤해짐, 마비, 생기 없음, 시듦, 희미해지고 흐트러짐.

다리가 12개인 누페(Nupe) 전통 의자는 고위 족장들이 의자로 사용하며, 중요한 의사 결정



과 영적인 삶에 대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장날이나 중요한 회의 기간 동안에는 명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적 영역에서는 신비요법이나 자연 치유 요법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활동들을 위한 왕좌로 사용됩니다.



비엘라, 이탈리아



비엘라의 주요 정책

2019년 말, 비엘라는 공예 및 민속 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예술과 공예"는 양모 직물 생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비엘라 전통 문화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신청 과정 동안, 비엘라는 점점 더 영토와 자원의 풍부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되는 것은 특히 고유의 문화 창조 분야에서 시작하여 성장과 협업을 위한 시나리오와 전례 없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비엘라를 클러스터 지역에서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엘라 창의도시의 주요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창조, 생산, 유통 및 보급을 강화하기 위한 Weave Memory:

비엘라의 무형 및 유형 유산(예: 이탈리아 메이드 브랜드 아카이브)을 시작으로 울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도시에 이중의 "첨단 공간/포털" 구현;

창의성과 혁신의 허브를 개발하고 문화 부문의 크리에이터 및 전문가를 위한 기회를 넓히기 위한 Weave Talent:

네트워크 도시의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전달 과정;

문화와 창의성을 지역 개발 전략 및 계획에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Weave Territory:

도시 환경(도심의 버려진 건물)에서 건축 유산의 복구, 인적 자본의 접근성 및 가치 평가 향상(접객 및 영토 마케팅의 고급 교육 과정);

Weave Relations, 비엘라 나미비아 양모 생산 지역의 선도적인 중심지인 키트만슈프에게 교육(나미비아 운영자를 위한 비엘라 워크숍) 및 공예 및 민속 예술 분야의 향후 적용을 위

한 멘토링; Weave Future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성, 도시 개발, 섬유 생산 프로세스 및 최종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담하는 포럼을 2년마다 개최; UN SDGs 및 Weave Art&Enterprise를 지향하는 R&D 구현,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 및 예술가 유치, 기업, 이해관계자 및 학생들과의 워크숍, 회의 및 포럼에 참여 및 진행.

2023년 한 해 동안, 제39회 세계 마스터 테일러 연맹 총회가 비엘라에서 개최되어 270명의 전 세계 마스터 테일러들과 함께 세계적인 테일러링 우수성을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개최된 이 행사는 역사적인 도심에서 주목할 만한 패션 퍼레이드를 선보였으며, 마스터 테일러들은 명망 있는 상(골든 팀블, 골든 초크, 골든 시저)을 받았습니다. 페더모다, 콘파르기아나토, UIB 및 피에몬테 지역과 같은 기관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은 이 국제 모임에는 가이드 투어 및 전시회를 제공하는 주요 지역 섬유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섬유 산업의 기둥으로서 테일러링은 고객과 섬유 문화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육성합니다. 34개국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총회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비엘라의 섬유 우수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물과 환경의 가치와 문화"를 주제로 한 2023 비엘라 창의도시 포럼은 산업, 공예, 지역 활동, 환경, 알파인 시티(알파인 컨벤션과 함께 운영 네트워크)의 강력하고 관련된 세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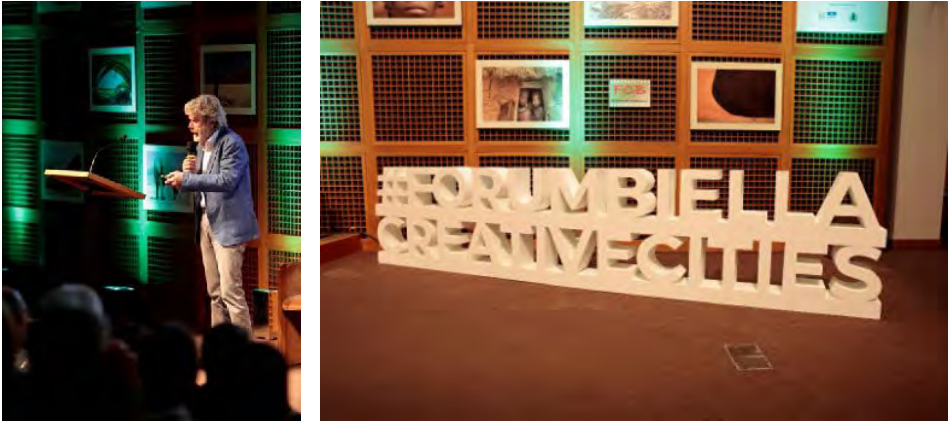


트렌드를 혁신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핵심 개념인 지속 가능한 창의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환경, 토양 보호, 기후 변화, 물 문화 및 경관 디자인에 대한 이들 간의 논의는 또한 생태 환경, 경제 및 윤리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물" 요소의 복잡성을 다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포럼에는 산업계, 대학, 협회, 학교, 그리고 건축가들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한 손님으로 나탈리 모렐(알파인 컨벤션의 상임 사무국)과 게오르크 카세르(기후 및 극저온 연구 교수이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멤버)가 초청되었으며, 기조 발제는 지오반니 솔디니 해양 보호 대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알파인 시티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비엘라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 존중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산악인 라인홀드 메스너를 초청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전환에 전념하는 지역 사업체들의 상당한 참여가 있었



고, 그들은 비엘라에서 창의력의 풍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 환경 에너지부에 의해 소개된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패널은 카라라, 파브리아노, 코모, 페사로, 그리고 파두카가 참여하였으며 현재의 창의 도시에 가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포럼의 영상은 비엘라 시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두바이 출신의 재단사가 출연하는 패션쇼, 2024년으로 예정된 시상식이 있는 학교 공모전을 시작으로, 키트만슈프(나미비아)의 이미지 전시 및 기타 도시 전역의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변 이니셔티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레나토 라바리니
(Focal Point of Biella)

세계 유머와 풍자 축제



가브로보는 국제적인 유머의 수도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로보는 백년 전에 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특히 문화와 예술을 통해 수십년에 걸쳐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세계 유머와 풍자 축제는 다양한 종류의 예술과 표현양식을 한데 모으는 가브로보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축제는 음악, 춤, 연극, 성악, 시각 그리고 현대 예술이 종합적으로 펼쳐집니다. 매년 5월, 도시는 가브로보와 그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유머에 초점을 맞춰 행사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부가가치를 더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이며 가브로보라는 브랜드를 광고합니다.

“말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그것을 느껴야합니다...”

축제의 가장 주목할 만한 행사는 카니발입니다. 각 마을의 특색 있는 카니발 전통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과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와 파트너십으로 의미를 풍부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카니발 운동은 예술가들과 참가자들과의 안정적이고 강한 관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험과 참신함에 열린 청중들을 끌어들이습니다.

가장 거대하고 매력적인 행사인 카니발의 행렬은 가브로보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인 약 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입니다. 참가자들의 나이는 1세부터 101세까지 다양하며, 각 마을에 참가자로서 또는 구경꾼으로서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않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카니발은 도시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 커뮤니티 센터, NGO 부문,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모두 포함되어 조직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행사를 통해 마을은 하나로 묶입니다.

가브로보의 카니발은 재미와 웃음의 장소로서 도시의 대중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확인하는 전략적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모두가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풍자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과 관중들을 목표로 하는 카니발의 메시지는 항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고, 삶의 공동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인 마을정체성의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드는 '마을-고유성'의 상호관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축제와 카니발은 유럽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동시대 도시의 경향을 나타내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모두가 자신의 성격과 위치를 드러낼 수 있게 합니다.

벨리미라 스리스토바
(Focal Point of Gabrovo)

Welcome to Carnival Gabrovo - 18 May 2024

Web - <https://carnival.gabrovo.bg/en/home/>

Social Media - <https://www.facebook.com/Carnival.Gabrovo>

김해, 대한민국

김해, 가야금 통해 유네스코 창의자산 알리다

- 세계 애국가 · 도시 상징 노래 가야금 연주곡으로 편곡해 선물 -

김해시(2021년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가입)는 지난 12월 시가 보유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자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류 중인 세계 각국 도시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협력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은 가야금연주곡 배포사업을 진행하였다.



김해시 대표 창의자산이자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시립가야금연주단 (감독 황정숙)의 가야금연주곡을 통해 전통문화와 가야금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활발한 국제 네트워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삼국사기 ;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에 의하면 가야금은 김해의 옛 왕국인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으며 ‘가야고’라고도 한다. 찬란했던 가야 역사를 배경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은 ‘가야왕도 김해’ 브랜드를 지닌 김해시의 대표 창의자산이다.

시는 이러한 가야금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 가야금 계승·보급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1998년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을 창단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가야금 단일 악기로 구성된 가야금연주단을 운영하는 곳은 김해시가 유일하다. 시립가야금연주단은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음악과 현재의 흐름에 어울리는 창작 음악을 소재로 연간 30회 가량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며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국제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가야금 연주 홍보영상 및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자산 홍보자료와 가야금연주곡 배포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 메일을 보냈다.

창의도시 등에서 애국가, 도시를 상징하는 노래 등 가야금 연주를 희망하는 다양한 장르의 곡의 악보를 보내왔고, 총 6개 도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해당 도시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인 나이지리아 'Bida', 김해의 국제 자매·우호도시인 베트남 '비엔호아시', 중국 '무석시', 미국 '레이크우드시', 일본 '무나카타시' 그리고 인도대사관이다.

시는 원곡의 느낌과 작곡가의 의도를 살려 가야금 연주곡으로 편곡 후 가야금 연주·녹음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사업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사업 진행 과정 및 창의자산 소개, 그리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네트워크 교류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가야금 연주곡과 함께 국내·외 창의 도시에 메일을 보냈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가 가진 우수한 창의자산을 모든 창의도시들과 공유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호이안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호이안 고대 도시는 199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공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호이안은 강, 호수, 해변, 섬, 들판, 그리고 맹그로브 숲이 있는 자연의 경이로운 나라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는 강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합류하는 것 때문에 "물의 융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16세기와 17세기에 봄비는 국제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했던 호이안 시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과 그로인한 문화적인 적응은 역사, 건축, 문화, 종교 활동, 공예의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정착촌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이곳 사람들의 독특한 "호이안 특성"을 이루는 것에 기여합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동안, 호이안 사람들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에 근거한 노동과 생산에 지속적으로 창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김봉 목공 마을, 탄하 도예 마을, 트락





야채 마을, 감탄 마을 그림과 대나무 공예, 등불 만들기, 옷 만들기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공예와 공예 마을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재능 있고 창의적인 장인들과 장인들의 손에 의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호이안의 공예품들은 상선을 통해 전 세계의 장소들로 운송되어 공동체의 생계를 유지하고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시간의 노력 끝에, 호이안의 주민들은 그들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즐겁게 하고, 교류하고, 애정을 기르며,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재창가, 바이 초이 노래, 민



요들을 작곡했습니다. 호이안의 바이 초이 예술은 유네스코가 도시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예와 민속예술은 호이안등축제, 호이안의 전통적 직업의 가치, 해변축제, 국제합창대회, 국제요리축제, 국제실크와 브로케이드축제 등 연중 크고 작은 프로그램과 많은 활동이 호이안 행사와 축제의 핵심입니다.

국제적인 문화 교류 축제들은 또한 공예 시연, 공예품 전시회, 그리고 전통 예술 공연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것들은 호이안의 호이안 일본 문화 교류와 독일의 호이안 등불 축제 (위 니게로테), 프랑스의 호이안 등불 축제 (파리), 한국, 이탈리아, 헝가리, 일본과 같은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포함합니다. 이 행사들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이안의 지역민들은 또한 공예와 민속 예술을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 하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도시는 현재 658개의 작은 사업체와 1,710개의 가정 사업체가 있고 4,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공예와 민속예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창작자, 예술가, 장인, 그리고 많은 창작 분야 전문가들이 일하고 정착하며 호이안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공간 뿐 아니라 재능 있고 열정적인 창작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끌어들이니다.

호이안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계획과 약속을 이행



하고 지역사회에 가치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호이안은 공예와 민예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시는 네트워크 내부 및 외부 구성원들과 연결 및 상호 작용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향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나자와의 우타츠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시리폰 산시리쿨 씨는 2022년 가나자와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염색 예술가입니다. 코요리 프로젝트의 그녀 작품을 위해 그녀는 태국 장관과 란나 문화 공예 협회의 다른 대표단들과 함께 우타츠야마 수공예품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홍보 리플렛에서 발견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치앙다오 블루는 그녀가 태국 치앙마이에 설립한 염색 공예 스튜디오입니다. 이 스튜디오의 컨셉은 "씨에서 염색까지"이며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일본의 장인들과 다른 염색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가나자와는 2009년에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UCCN 회원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우타츠야마 수공예품 박물관에서 보냈습니다.

이 시설은 도자기, 옷칠, 염색, 금속공예, 유리 등 다섯 개의 스튜디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리폰 산시리쿨 씨는 우타츠야마 수공예품 염색 스튜디오에서 일본의 인디고 염색을 배웠습니다. 가나자와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그녀는 인디고 염색 외에도 바틱(batik)과 감물염색을 배우기 위해 여러 번 다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인디고와 감물염색을 포함한 천연염색은 발효가 관건입니다. 가나자와는 '비 오는 도시'인 만큼 온도에 따라 공정이 달라졌습니다. 날씨 때문에 공정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2022년 11월 일본을 떠나기 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가나자와에서 치앙다오로 돌아온 후, 그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씨에서 염색까지"라는 개념 아래 쪽빛 식물 "흙"을 재배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와 노인들에

계 공방을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창작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나자와의 포컬포인트로서, 우리는 그녀가 이곳에서의 경험을 태국에 있는 그녀의 스튜디오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Yoko Kawa
Focal Point of Kanazawa

퀴타야의 창의산업

퀴타야는 2017년 유네스코 사무국으로부터 공예 및 민속 예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튀르키예 최초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네스코 네트워크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통 공예와 예술로 엮여진 이 도시의 문화적 태피스트리는 퀴타야의 풍부한 문화 유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도시와 예술 매거진: 치빗(çivit)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퀴타야의 국내 및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우리 도시를 매우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 권위있는 네트워크 내에서 우리 도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서, 우리는 이중 언어(영어와 튀르키예어)로 출간되는 매거진 '치빗(Çivit)'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이 간행물은 우리 지역의 예술과 공예를 알릴 뿐더러, 이러한 예술적 노력 뒤에 숨은 재능 있는 장인들을 소개하는 데 전념하며 최대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니세스 도자기 축제 2023

스페인에서 도자기로 유명한 마니세스(Manises)는 매년 7월에 예술가, 장인 및 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글로벌 집결지가 됩니다. 올해 "도자기 축제" 행사에 치니(Çini)의 수도인 쿠타야가 초청받은 것은 중요한 인정의 의미로서, 우리 시가 "도자기 축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상으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 행사에는 쿠타야 대표단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 예술 도시인 쿠타야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재능이 돋보이는 타일 및 도자기 작품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은 스탠드를 설치하고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뜻깊은 문화 간 교류를 도모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덤럽나르(Dumlupınar) 대학의 카난 귀네(Canan Günes) 박사는 휠 부문 경연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는 마니세스의 예술 커뮤니티와 더불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고, 국제 플랫폼에서 우리 도시의 위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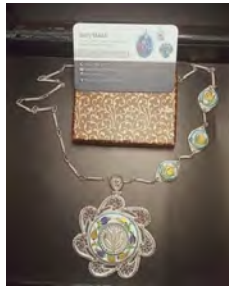


가브로보에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쿼타야

불가리아 가브로보의 연례행사인 “에타르(ETAR) 지역 야외 민속지학 박물관 전통 예술 박람회”는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최된 제18회 행사에 우리 시를 초청하였습니다. 우리 지방 자치 단체 대표단은 자매도시 관계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이번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쿼타야의 섬세한 은 가공의 예술성을 국제무대에 선보이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내에서 우리 도시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우리는 쿼타야의 민속 의상을 소개하여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 문화관광부를 대표하는 은 자수 예술가 사킨 야만(Sakin Yaman)은 박람회 기간 동안 열린 장인 경연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디자인한 작품 "Art Talisman"은 쿼타야로부터 가브로보로 옮겨져 대회 기간 동안 제작된 작품과 함께 현재 에타르 야외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를 대표하여 가브로보에 참여한 은 가공 예술가 움뮴한 오루슈 (Ümmühan Oruç)가 만든 정교한 은 장신구 세트도 에타르 야외 박물관에서 영구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성과는 쿠타야의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와 가브로보 간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에도 기여합니다.



예술의 통합적인 힘

쿠파야 창의 문화 산업 정상회의

2023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쿠파야 지방 자치 단체가 치밀하게 주최하고 에뛰드 프로젝트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조직한 "창의 문화 산업 정상회의"가 쿠파야에서 열렸습니다. 성대한 개막식에는 참가 도시들과 자매 도시들을 대표하는 국기들이 전시되어 행사가 담고있는 글로벌 협력을 상징했습니다. 리본 커팅식에 이어 비공개 회의, 패널 세션, 휠 돌리기 경연 대회, 자이벡(Zeybek) 아트 공연, 라쿠(Raku) 소성, 요리법 축제 및 디지털 전시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걸쳐 40 개 이상의 도시에서 온 예술가, 장인 및 도시 대표를 포함한 귀빈들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 내에서도 18개 도시로부터 존경받는 예술가, 장인, 대표 및 시장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습니다. 패널 세션에서는 경험 많은 연사들이 참여하여 쿠파야의 창의 문화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예술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정상회의는 키타야의 예술 유산의 기초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고무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국제 교류를 위한 활발한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특별 전시를 통해, 예술 애호가들은 유네스코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의 타일 예술가인 메흐메트 귀르소이(Mehmet Gürsoy)와 함자 위스툰카야(Hamza Üstünkaya)의 독보적인 걸작 컬렉션과 더불어 알로파사(Alopasall)의 타일 예술가 이스마일 이기트(Ismail Yigit)와 이브라힘 코카오루(İbrahim Kocaoğlu)의 탁월한 기증작품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물 전달 행렬인 "도자기 산책(Ceramic Walk)"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케라미카(Keramika), 툴루 도자기(Tulu Porcelain), 아이딘 수공예(Aydın Handicrafts) 및 에르메



스 도자기(Hermes Porcelain) 회사가 후원한 행사로 쿠타야 시청 건물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렬은 자페르 광장(Zafer Square)을 지나 시청 건물로 되돌아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국들과 자매 도시들의 깃발을 든 전담팀과 의정서 대표들이 함께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 행진은 쿠타야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선물을 나눠주는 매우 특별한 전시로 펼쳐졌습니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게르미얀(Germiyan) 거리로 가서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감상했는데, 이 곳은 우리 도시의 문화 유산이 면밀하게 보존되어 있고 수많은 예술가와 공예가들이 거주하고 작업하는 안식처입니다. 이어서 타일 박물관에서는 타일 예술에 관한 역사적 뿌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설명을 통해 통찰력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하이라이트는 오래된 목재 용광로가 있는 엘함라 타일 공

방(Elhamra Tile Workshop)을 방문한 것이었는데, 알리 오스만 케르크크(Ali Osman Kerkük)가 제작하여 지금까지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이 용광로를 통해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탐방은 엄선된 문화 투어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타일, 바늘귀, 은 자수, 카펫과 양탄자 직조, 자수, 목각, 천 인형 제작, 알라투르카 (alaturka) 다이아몬드 가공 등 쿼타야의 전통 예술과 공예품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소중한 계 전승되어오며 도시의 창의 문화 산업의 활기찬 태피스트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잘 바부르(Hazal BABUR)

(프로젝트 매니저/쿼타야 시 에뛰드 프로젝트)

휴메이라 테멜 듀버(Hümeyra TEMEL DÜVER)

(프로젝트 매니저/쿼타야 시

에뛰드 프로젝트)

마니세스, 스페인

도자기 창의도시, 마니세스

마니세스는 스페인 발렌시아의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지중해 도시다. 마니세스는 투리아 (Turia) 강 오른쪽 강둑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르타 수드(L'Horta Sud) 지역에 속해 있다. 2021년 11월 8일 이후 마니세스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깊은 도자기로 인해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 현재 이 도시는 도자기 세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일 년 내내 개최하고 있다.

국제 행사 중에는 2024년 봄에 제16회를 맞이하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 도자기 대회 중 하나인 “마니세스 국제도자기 비엔날레”(Manises International Ceramics Biennial)가 눈에 띈다. 이 비엔날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많은 국가의 예술가들이 참가했다.

올해 “마니세스 국제도자기영화제”(Manises International Ceramics Film Festival)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최신 영화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주제는 재료, 공예 또는 산업 전통, 현재 또는 역사, 예술 작품 또는 단순히 상상력을 펼치기 위한 출발점 등 모든 관점에서의 도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영화제는 2024년 봄에 마니세스 국제도자기 비엔날레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도자기협회는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고고학 발굴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작업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고고학 자원봉사 캠프를 촉진시켰다. 14세기 이후 마니세스에서 계속된 도자기 생산으로 인해 이 활동과 관련된 수많은 고고학적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대부분의 증거는 오브라도르스(Obradors)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7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 증거들이 발견되는 고고학적 지역이다. 이 지역의 하층토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중세 도자기 생산지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마니세스는 또한 “도자기 퍼레이드”(Ceramics Parade)를 100년 이상 매년 개최해 오면서 축제 행사와 인기 있는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퍼레이드는 수레를 타고 도시의 주요 거리를 행진하며 지역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다.

“도자기축제”(Ceramics Festival) 역시 197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장인들과 예술가들은 도시를 놀라운 도자기 풍경으로 바꾸고, 거리에서 작품 시연을 한다. 이 행사에서 방문객들은 직접 점토를 빚거나 이미 전시된 작품을 구입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 이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바르셀루스(포르투갈), 파두카(미국), 마다바(요르단), 퀴타히야(튀르키예) 등 많은 창의도시들이 마니세스 축제에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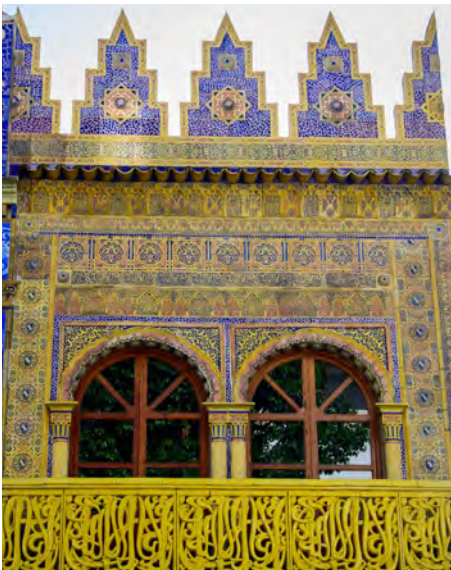
고 국제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했다.

또한 매년 마니세에서는 여러 도자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2주년을 기념하여 2024년 1월 말까지 두 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국립도자기전문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eramic Professionals)는 “도자기 장난감”(Joguets en ceràmica)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게임, 장난감 및 상징적인 캐릭터들을 도자기 작품을 통해 해석한 것이다.

다른 한편, 마니세스는 창의도시 르셀로스(포르투갈)를 초청하여, 그 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도자기를 보여주는 “바르셀루스 점토 인형의 환상적인 세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포르투갈 마을 주민들의 구전 전통, 집단 기억, 문화 유산을 반영하는 수공예 인형을 선보이고 있다.

마니세스는 스페인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다. 그리고 최근의 지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일한 도시로 남아 있다. 도자기 창의성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사회 포용



및 문화적 영향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 발렌시아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인 목표가 되었다.



UCCN 회원 10주년을 기념하며

파두카는 2023년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으로 1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며 보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파두카는 기존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예 및 민속 예술 부문 외에 다른 부문의 창의 도시와 새로운 협력을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가지 우선 순위는 지역 주민들에게 UCCN을 홍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창의 도시와 UCCN 내에서 파두카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기 위하여 지역 인쇄 매체, 텔레비전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파두카 창의 도시 팀은 #MyPaducah라는 수상 캠페인을 만들었는데, 이 캠페인은 주민들이 도시를 즐기고 있는 자신의 사진들을 공유하도록 장려했습니다. 파두카 창의 도시 팀은 일 년 내내 시민 단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두카 창의 도시에 대한 예술과 문화단체들의 주인의식은 7월 한 달 동안 가장 분명하게 두드러졌습니다. 그 기간에 발표했던 파두카 로타리 클럽 연사들은 모두 UCCN과 관련된 경험을 언급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프로그램의 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이탈리아의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종이제작 장인인 산드로 티베리(Sandro Tiberi)가 예이저 아트센터(Yiser Art Center)가 주최하는 판타스틱 파이버(Fantastic Fibers)의 참가자로 파두카를 방문했습니다. 산드로는 미국 퀼트인 협회 퀼트 워크(American Quilter's Society QuiltWeek)를 방문하고, 강연하고, 학교들을 방문하고, 리셉션에 참석하고, 예술가들을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산드로는 파두카의 지역 담당자(focal point)인 메리 해먼드(Mary Hammond)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는 파두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섬유 예술가 수잔 스펜서(Susan Spencer)는 산드로와 만나 자신의 전통적인 종이 패

턴 제작 회사인 심리 시스템스(Seamly Systems)를 어떻게 패션 디자이너에게 디지털 디자인 도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성장시켰는 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스프로킷 파두카(SPROCKET Paducah)를 통해서였는데, 이 기관은 기술 기반 비즈니스를 육성하고, 협업을 촉진하며, 성공을 위한 필수 자료들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디지털 경제 개발 조직입니다. 수잔은 또한 켄터키 공과대학 파두카 캠퍼스(University of Kentucky College of Engineering Paducah Campus)의 공학도들과 협력하여 3D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산드로 티베리는 2024년 4월 파두카에서 열리는 판타스틱 파이버(Fantastic Fibers) 대회 of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었습니다.

10주년 기념행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2022년 진주 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를 통한 직접적인 성과였습니다. 미국 남부의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휠하우스 루스터스(Wheelhouse Rousters)는 비엔날레의 문화 공연에서 파두카를 대표했습니다. 수코타이, 와가두구, 바키오 시, 비다, 암본 출신의 음악가와 무용수들과 많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파두카와 인도네시아의 음악 부문 창의 도시인 암본(Ambon)에서 온 음악가들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카이홀루(Kaihulu)의 음악가 6명과 암본의 포컬포인트 로니 로피즈(Ambon Focal Ronny Loppies)는 파두카를 방문하고 로어 타운 예술 음악 축제(Lower Town Arts & Music Festival)에 참가하기 위해 편도 10,000마일을 여행했습니다. 로어 타운은 국가 유적지로 등재된 지역에 위치한 예술 지구입니다. 카이홀루와 휠하우스 루스터스는 레스토랑, 텔레비전 및 거리에서 예정된 공연과 즉흥 공연까지 여러번의 공연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방문은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로니 로피즈도 또한 파두카의 포컬포인트인 메리 해몬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경험은 지식 교환과 관계 형성을 증진시킵니다.

파두카가 2022년 마니세스 도자기 축제에 초대된 후에 또 다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니세스는 스페인의 공예와 민속 예술 부문 창의 도시입니다. 마니세스 도예가이자 아마추어 요리사인 제이미 로메로(Jamie Romero)가 파두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부 켄터키 커뮤니티 기술 대학(West Kentucky Community & Technical College)에서 전통적인 스페

인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 수업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등학교 요리 수업과 파두카 예술 디자인 학교(Paducah School of Art & Design)를 방문했습니다. 제이미와 지역 도예가 미치 김볼(Mitch Kimball)은 프레이트 하우스(Freight House) 레스토랑의 유명한 파두카 셰프, 사라 브래들리(Sara Bradley)와 협력하여 특별 기념 마련 식사에 사용될 접시, 잔 및 서빙 그릇들을 굽는 동안 지역 사회가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사라는 최근 브라보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탑 셰프: 세계 올스타들(Top Chef: World All Stars)에 참가했습니다.

몇 달 후, 파두카의 예술가와 사업가 대표단이 2023년 도자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마니세스를 방문했습니다. 파두카 창의 도시의 리즈 해먼즈(Liz Hammonds)를 포함한 일행이 이번에는 파브리아노(Fabriano)로 가서 산드로 티베리(Sandro Tiberi)를 방문하여 전통적인 종이제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대표단은 마니세스와 파브리아노의 창작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고, 본국에서 UCCN의 사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영감을 가지고 파두카로 돌아왔습니다.



파스토, 세계의 창의도시

2021년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됨으로써 파스토는 다시 한번 국가적, 국제적으로 남부의 문화적 배경과 예술적 전통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인정신이 자연자원을 변형시키고 조합한 이 남쪽 땅의 대표적인 수공예품들은 가치가 매우 높은 독특한 작품들입니다. 장인의 감정 뿐 아니라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조상의 기술을 배우고 영감을 얻기까지 총체적인 정교화 과정을 거칩니다.



크리에이티브 라인 공예

목공예

루테리아타모(Tamo)의 베니어 기법

금속 세공

보석

가죽공예

종이 접착 (카니발)

잔디 바니쉬

가죽 엠보싱

내각제

도자기

직조

우드 터닝

목각

도자기

보석



대중예술

파스토의 흑과 백 카니발

장인, 예술가, 무용가, 연극인, 조각가, 화가, 관리자, 온 가족의 상상력이 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모이고, 이 대중적인 축제는 원재료인 모파-모파를 멋진 독특한 작품으로 변형시키는 공예 기법을 초월하여 파스토의 창의성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시적으로 발현시킵니다. 이는 장인들이 자신의 기법을 디자인하고 적용하여 나무 조각들을 고운 색종이로 장식하는 마법의 과정입니다.



Strengthening the Centro Empresarial Escuela de Artes y Oficios as a Center for Creative Entrepreneurship.

파스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Centro Empresarial Escuela Artesy Oficios는 창의적 기업가 정신의 발원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보여주는 풍부한 공예와 문화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통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플랫폼을 필수적인 도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교육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을 위한 지식과 기회의 전달의 장으로서 연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업가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과제에 대한 독특한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Pasto Ciudad Creativeiva en Artesanía y Artes Populares 2021-2025" 실행 계획과 일치하며, 여기서 "Centro Empresarial Escuela de Artes y Oficios"의 강화는 기술적 지식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하고 기업가적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문화적 부는 수익과 변화를 창출하는 지속적인 원천이 됩니다.

창의적인 문화 아젠다

매우 다양한 문화예술적 표현들은 파스토를 다양한 표현들 속에서 전통과 지식을 융합하고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서 경제적 역동성을 활성화하는 활기찬 문화 제공의 도시로 만듭니다.

파스토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Onomastic San Juan de Pasto- - June 2023

Carnival Square

Carnival of Blacks and Whites of Pasto

Onomastic San Juan de Pasto

Holy Week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Peasant Music Festiv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Pasto FICPA

Galeras Rock

Pasto Jazz World Music
San Juan de Pasto Art Salon
International Music Trios Competition
International Comic Convention
Mercartesano
Cultural Heritage Week
Artisan Carnival
Art, Crafts and Design Fair

장인의 도시 파스토는 예술가, 문화, 관리자, 창작자의 타고난 재능에서 강점을 찾으며, 그 가치로 인해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선조들의 유산인 원료로서의 창의성을 높이는 주체들 간의 협력과 좋은 거버넌스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모두의 약속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기슬라 체카 산호
(Focal Point Pasto Creative City)

웨이팡, 중국

웨이팡 국제 연 축제



전세계에 연으로 유명한 웨이팡은 깊은 연 문화와 긴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2,400년도 이전에, 중국 목공의 아버지인 루반(魯班)이 최초로 나무로 연을 만들었고 그것을 웨이팡의 루 언덕에서 날리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연이 대중화 된 시초로 여겨집니다. 최



초의 종합적인 국제적 수준의 행사들 중 하나로, 국가체육총국, 국제연맹, 웨이팡시 인민정부의 공동 후원으로 1984년 4월, 웨이팡 국제 연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개최된 연 축제는 매년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작합니다.



1988년 4월 1일, 제5회 웨이팡 국제 연 축제 기간 동안, 웨이팡시는 여러 나라의 연 협회에 의해 "세계 연의 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 연 연맹은 1989년 4월 1일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웨이팡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연맹은 애초 16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여 오늘날 67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웨이팡 국제 연 축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종합적이고 국제적인 행사로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 성과를 보여주고 지역경제·국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웨이팡 국제 연 축제는 최근 발전과 혁신의 흐름에 발맞추어 중국에서도 특색 있는 문화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웨이팡 국제 연 축제는 "연 제목, 연단 만들기, 사업 운영"의 활동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며 10,000개의 연으로 비행 쇼, 세계 연 선수권 대회, 전국 스포츠 연 및 야광 연 초청 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웨이팡에서 가장 독특하고, 대표적이며, 영향력 있는 행사로서, 그것은 또한 지역민들을 위한 큰 축제입니다. 축제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의 관람객들이 웨이팡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 개막식에는 연을 연습하는 사람들과 웨이팡 국제 연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수 천 마일을 여행한 71개국 및 지역의 팬들을 포함하여 20만 여명이 참가합니다.